

러, 유가상한제 시행일에 미사일 70여발 퍼부어

최근 2달새 8번째 대규모 공습...러 "목표물 17개 모두 타격" 우크라, 적극적 방어 '선방'...몰도바에도 미사일 파편 낙하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시설을 겨냥한 대대적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주택가가 파괴되고 전국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에도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이날 폭격으로 최소 4명이 숨졌다"면서 "많은 지역이 비상 정전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적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미사일로 다시 공격했다"면서 자포리자에선 미사일이 민간 거주지에 떨어져 2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3명이 다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수도 키이우와 빈니차, 오데사, 수미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전력 시설이 골고루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서는 공습으로 상수

도 펌프장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어져 도시 전체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 미콜라이우 시장은 화재 위험 탓에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말했다.

중부 크리비리흐에서도 도시 일부에선 정전이 발생하고 상수도 펌프장과 난방시설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동북부 수미주 북부에서도 미사일 공격 탓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23일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전력망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수도 키이우는 겨우 수리를 마치고 비상 정전에서 계획단전으로 이행한다고 주민에 공지한 직후 다시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날 키이우의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이었다.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주로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브리짓트 브링크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이번 공격은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가정을 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러시아의 잔혹한 전략



지하철역에 대피한 시민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민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 방공호로 사용되는 지하철역에 대피했다. /AP=연합뉴스

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내 17개 목표물 전체를 타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격은 수일 전부터 예견됐

기에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키이우는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영국 BBC 방송도 비록 러시아가 폭격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날 공격은 이전에 진행됐던 비슷한 규모의 폭격보다 적은 피해를 주는 데 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방으로부터 대공 미사일 체계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발사

한 미사일 상당수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말했으며, 키이우 시당국은 키이우로 날아온 미사일 10개 중 9개를 쏘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총 70여 발 중 60여 발을 요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키이우, 오데사 등 각지의 에너지 시설이 손상됐고 일부 지역에서 비상 정전이 이어졌다"면서 "전국적인 전력 시스템은 여전히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남부 러시아 지상과 흑해 및 카스피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략 폭격기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공망에 의한 미사일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나눠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이웃 몰도바에도 일부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전력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은 10월 이후 러시아가 가한 8번째 대규모 공습이다. /연합뉴스

콜롬비아, 산사태로 최소 27명 사망

흩더미 도로 덮치며 차량 매몰 정부 "8월부터 잦은 비로 지반 약화"



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서부 리사랄다주 푸에블로리코의 산사태 발생지역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8월 말부터 내린 잦은 비로 지반이 약화한 콜롬비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7명이 숨졌다.

5일(현지시간) 엘티엠포와 엘에스펙타도르 등 콜롬비아 일간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날 콜롬비아 서부 리사랄다주 푸에블로리코 지역에서 발생했다.

도로 인근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를 비롯해 차량 여러 대가 흩더미에 깔렸다. 이 차량들은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몰된 차량 일부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20여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구조당국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버스 승객 피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트위터에서 "리사랄다주 푸에블로리코의 비극으로 지금까지 2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슬프게도 알려드린다"고 썼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3명이 포함돼 있다.

버스 탑승 현황 등을 확인한 구조당국은 아직 실종자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도 삽이나 맨손으로 현장에서 구출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굴착기가 언덕 아래로 미끄러질 수 있어서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올해 우기가 8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지며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27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최근 40년 새 최악이라고 현지 신문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도로서 골프카트 몰다 걸린 美 경찰서장 사임

"나 옆동네 사장인데"...압력 행사 논란 일어

미국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일반도로를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나는 경찰서장"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현지 서장이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5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2일 밤 플로리다주 피넬리스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템파 경찰서장이었던 메리 오코너는 남편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 옆자리에 앉아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카트에는 제대로 된 번호판도 달리지 않았고, 이에 마침 도로에 나와 있던 교통 단속 경찰관이 다가가 카트를

멈춰 세웠다.

그러자 오코너의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오코너는 웃음을 띤 채 경찰관에게 "보디 카메라가 켜져 있느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코너는 "나는 템파 경찰서장"이라며 직접 자신의 배지를 꺼내 경찰관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밤에는 우리를 그냥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속 경찰에게 자신이 옆동네 경찰서장이니 봐달라고 한 것이다.

경찰관이 "알았다"고 답하며 골프카트를 그냥 보내주려 하자 오코너는 그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혹시나 필요한 게

있다면 연락해달라. 짐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이 오코너가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은 경찰관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이후 이 카메라 영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경찰서장이 자신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오코너는 골프 카트를 타고 나간 게 처음이었는데 이같이 처신한 것은 미숙한 행동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 "지나고 보니 당시 나의 대처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휴직 상태로 당국 조사를 받던 그는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단속 경찰관에게도 사과했으나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결국 이날 사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멕시코에 상륙한 'K-웹툰'...내년 2월까지 전시회

해의문화홍보원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영상진흥원과 함께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멕시코 국립영화원(Estudios Churubusco Azteca)에서 한국 웹툰 전시회 '올라! K-웹툰' 개막식을 했다.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 및 멕시코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대상작 '미래의 골동품 가게'(글·그림 구아진)를 비롯해 '여신강림'(글·그림 야옹이), '웃소매 붉은 끝동'(각색·콘티 도파민/페

나, 작화 CreativeSUMM) 등을 선보인다.

서울역사박물관, 전북 남원시, 문화재청 협조를 얻어 조선 시대 궁녀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코너도 마련했다.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을 수 있는 체험 기회 역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초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